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City People to Revitalize the Green Tourism

김익환*, 장한섭**, 김영민***
Ick-Hwan Kim*, Han-Seub Jang**, Yung-Min Kim***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duce the image of city people on rural district, and to clarify the city people's demands on rural tour and their consciousness on green tourism. This study also aims to propose the effective ways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rural district to revitalize green tourism and to promote the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district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most city people have a warm-hearted lyric image on rural district. In addition, it is indicated that the city people like the rural district with beautiful scenery, which is easy to contact with nature. On the other hand, as the goal of green tourism, in addition to the contact with nature, the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districts and the understanding on the rural life through personal experience are also considered very important. Finally, the city people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green tour program with emphasis on the city people of overall-type

Keywords : *Green Tourism,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district, Rural tour, Image of city people on rural distri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민들의 소득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의 발달 등에 의해 혼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자녀들의 자연학습과 농촌 체험, 심신수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린투어리즘이 새로운 농촌관광의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그린투어리즘은 1980년대에 정착된 서구나 일본에 비해, 그 역사가 매우 짧으며 2000년 이후, 비로소 중앙정부 산하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역사가 짧은 만큼 연구의 업적 또한 그리 많지는 않으나, 최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외국의 사례연구와 국내에의 적용을 모색한 연구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및 소득증대를

* 교신저자,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工博
E-mail: ihkim@kumoh.ac.kr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工博

* Corresponding Author, Prof., School of Architectur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Ph.D.

** Completed Doctor's Course Graduate School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dditional Prof., School of Architectur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Ph.D.

위한 방법을 모색한 연구와 농촌에 그린투어리즘을 정착시키기 위한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수 있다.

특히 최근 그린투어리즘이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체된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의 상호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그린투어리즘 연구도 다수 있으나 주로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 도시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농촌의 상(像) 및 요구에 기초한 연구의 성과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이란 도시주민이 농촌으로 찾아가는 도.농교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주민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을 가진 농촌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도.농교류형 그린투어리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도시주민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을 효과적으로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시민이 농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주민의 심상(心象)에 남아있는 농촌에 대한 내면적인 이미지(農村像)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도시주민이 농촌관광에 대한 요구 및 인식구조를 밝혀내는 것은 금후 도.농교류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농촌환경정비에 있어 기초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의 한 유형인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도시인 김천시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주민이 상정하는 농촌상과 농촌관광에 대한 요구 및 인식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도시주민의 유형화에 주목하여 농촌유형에 대한 선호도로부터 도시주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구조의 특징을 밝혀냄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의 범위는 경상북도 김천시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김천시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가 중.소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천시에는 농촌

전통테마마을이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험형 그린투어리즘이 2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중 증산면의 ‘옛날솜씨마을’은 연간 방문객의 수가 약 8,000 명에 이르러 경상북도 전통테마마을 중 가장 높은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어 김천시민이 쉽게 그린투어리즘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의 내용으로는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도시주민이 상정하는 농촌상(像)과 도시주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요구 및 의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밝혀내고, 또한 농촌 및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인식구조가 주민유형별 달라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도시주민이 가고 싶어하는 농촌’의 유형을 기초로 도시주민을 유형화를 하여, 도시주민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의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2일간이었고, 652부의 유효회답을 얻었다. 모집단인 김천시 전체에 대한 표준오차는 신뢰도 95% 만족에 대해 3.84%이다.

2. 농촌 및 농촌 관광에 대한 도시주민의 인식구조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able 1)은 성별로는 남성이 51.0%, 여성이 48.6%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7.5%로 가장 많고, 30대가 30.4%, 20대가 20.2% 순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소위 ‘화이트칼러’층이 76.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 전업주부가 8.9%, 서비스업 종사자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 가족이 53.9%로 5할을 넘고 부모와 동거하는 2세대 가족이 22.1%로 다음 순위를 점하고 있다. 또, 농촌의 거주경력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도시로 이주했다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시에서 태어나서 줄곧 도시에서 살았다는 응답자가 29.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곧바로 도시로 이

주한 응답자는 14.3%,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농촌에서 살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3.0%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the survey objective people

구분	항목	N(%)
성별	남성	317(51.0)
	여성	302(48.6)
연령	20대	127(20.2)
	30대	191(30.4)
	40대	236(37.5)
	50대	69(11.0)
	60대 이상	5(5.5)
직업	자영업	49(7.9)
	화이트칼러 층	472(76.6)
	서비스업	40(6.5)
	기능직	13(2.1)
	전업주부	55(8.9)
	학생	15(2.4)
가족구성	독신	49(7.9)
	부부만	55(8.9)
	부모와 동거하는 2세대 가족	137(22.1)
	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 가족	335(53.9)
	3세대 가족	40(6.4)
농촌거주 경력	도시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서만 살았음	180(29.3)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농촌에서 산적 있음	80(13.0)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곧바로 도시로 이주했음	88(14.3)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이주했음	264(42.9)

2.2 도시주민의 농촌상과 농촌여행 목적

2.2.1 농촌상(像)

1) 도시주민의 농촌 이미지

Fig.1은 도시주민의 심상에 남아있는 농촌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주민들에게 ‘농촌’이라는 어휘를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해 다중회답(3개 선택)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다.

‘소박한 시골’이 61.8%로 가장 많고, ‘인정이 넘치는 곳’, ‘그립고 정겨운 풍경’이 각각 43.1%, 42.0%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수려한 경관’, ‘불결한 환경’은 10% 미

만의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 주민들의 심상에 남아있는 농촌의 像은 소박하고 인정 넘치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농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수려한 경관보다는 그리움과 정겨움이 남아있는 서정적인 풍경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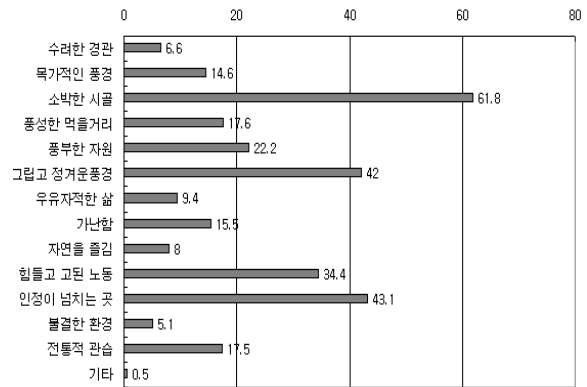


Fig. 1. The rural image of city people.

2) 농촌체험 후 농촌에 대한 인식

한편, 실제로 농촌 환경을 체험했을 때의 느낌을 앞서 분석했던 항목에 대하여 다중회답(3개 선택)의 결과(Fig.2.), ‘힘들고 고된 노동’이 57.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소박한 시골(42.9%)’, ‘인정이 넘치는 곳(36.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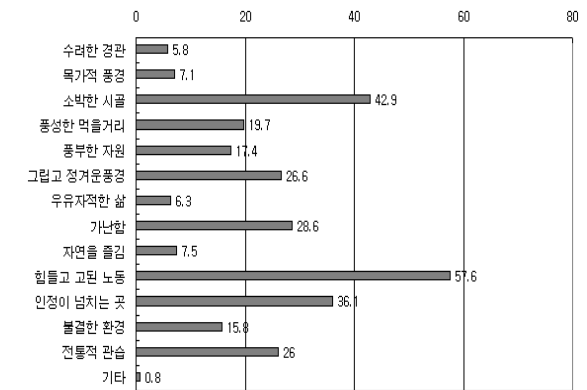


Fig. 2. The rural image after rural experience.

따라서 도시민의 심상에 남아있는 농촌상이 서정적인 것에 비해, 농촌체험후의 농촌상은 힘들고 고된 노동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박하고 인정이 넘치는 서정적 느낌도 현실의 농촌에서 비교적 높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농촌여행의 목적

Fig.3은 도시주민이 농촌을 여행한다면 가장 원하는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중응답(3개 선택)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신선한 공기 등의 ‘청정한 자연환경의 향유(58.1%)’와 ‘아름다운 풍경감상(54.8%)’이 5할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교육적 체험(41.3%)’이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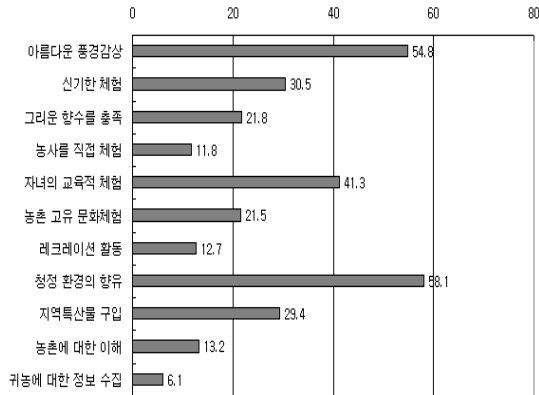


Fig.3. The purpose of rural travel.

그러나 ‘귀농에 대한 정보수집(6.1%)’, ‘농사 체험(11.8%)’, ‘농촌에 대한 이해(13.2%)’등을 목적으로 한 농촌 여행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도시 주민의 농촌 여행의 주된 목적은 도시를 벗어난 청정 환경의 향유와 풍경을 통한 마음의 정화 등 심리적 치유 효과 및 자녀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3 도시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호 및 중요도 평가

2.3.1 선호하는 농촌유형

농촌의 여러 유형에 대하여, 도시주민이 어느 정도 가고 싶어 하는지를 5단계 평정척도(전혀 가고싶지않다:1점-매우 가고싶다:5점)에 의해 묻은 결과 Table 2와 같다.

12종류의 농촌유형 모두 중간값(3점)이상의 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간미가 살아있고 ‘인정이 넘치는 농촌(4.36)’, ‘수려한 풍경이 있는 농촌(4.33)’, 산이나 개울 등, ‘자연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농촌(4.31)’, 풍부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4.23)’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Table 2. The preference among rural type

항 목	선호도
현대식으로 정비된 농촌	3.69
논밭이 넓게 펼쳐진 농촌	3.70
수려한 풍경이 있는 농촌	4.33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	4.23
동식물을 접할 수 있는 농촌	4.02
자연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농촌	4.31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	3.49
농사기술에 의한 발전된 농촌	3.57
특산물이 풍부한 농촌	4.05
전통적 풍경이 있는 농촌	3.96
전통관습이 남아있는 농촌	3.98
인정이 넘치는 농촌	4.36

반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3.49)’, 새로운 ‘농사기술에 의한 발전된 농촌(3.59)’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대식으로 정비된 농촌(3.69)’과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농촌(3.70)’도 비교적 낮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민이 선호하는 농촌유형은 농업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이나 잘 정비된 현대식농촌 보다는 수려한 풍경과 풍부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농촌체험의 선호도

Table 3은 도시주민이 농촌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5단계척도(매우하기싫다:1점 - 매우하고싶다:5점)로 묻은 결과이다.

Table 3. The preference among rural experience

항 목	선호도
농촌의 일상생활을 체험	3.16
농촌의 먹거리를 체험	3.93
자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함	4.08
자연과 접함	3.93
전원풍경을 감상함	4.23
전통적 농촌 풍습을 접함	3.93
특산물 등을 싸게 구입	4.06
농사일을 체험해 봄	3.15
자녀의 교육적 체험	4.05
청정한 환경을 향유	4.38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체험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정한 환경을 향유(4.38)’,

‘전원풍경을 감상함(4.23)’, 등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사일을 체험해봄(3.15)’과 ‘농촌의 일상생활을 체험(3.16)’등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풍경에 대한 체험을 가장 원하고 있는 반면 농사와 농촌의 일상생활체험에 대해서는 선호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도시주민들은 농촌에 대해 청정한 자연환경의 향유와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과의 접촉에 의한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농촌 체험을 선호하고 있지만, 농작업의 체험 등 농사와 농촌생활 체험에 관한 요구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앞서 분석한 선호하는 농촌유형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3.3 그린투어리즘 목표의 중요도

한편, 그린투어리즘 목표에 있어서의 중요도 평가(매우 중요하지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에서 ‘레포츠,레크레이션을 즐김’외에 모든 항목에서 4점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청정한 환경 향유(4.3)’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의 자연과 접촉(4.16)’, ‘농촌체험을 통한 자녀교육(4.16)’ 및 ‘도.농교류를 통한 문화적 격차를 줄임(4.11)’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importance of Green Tourism object

항 목	중요도
농촌생활을 이해함	4.13
농사를 체험함	4.01
도.농 교류를 통한 문화격차 감소	4.11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기대	4.16
농촌의 자연과 접촉	4.16
농촌의 전원풍경을 즐김	4.01
농촌의 전통풍습을 접함	4.02
농촌 봉사활동	4.06
레포츠, 레크레이션을 즐김	3.48
청정한 환경을 향유	4.30

따라서 도시주민은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의 접촉 및 향유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을 통한 농촌생활의 이해가 그린투어리즘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2.3.4 도, 농 교류를 위한 주요내용

도시민에 있어서 농촌과의 교류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Fig.4.), ‘주말농장 체험(52.5%)’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농, 특산물 구매(44.0%)’, ‘농, 어촌봉사활동(32.5%)’, ‘전통문화의 체험(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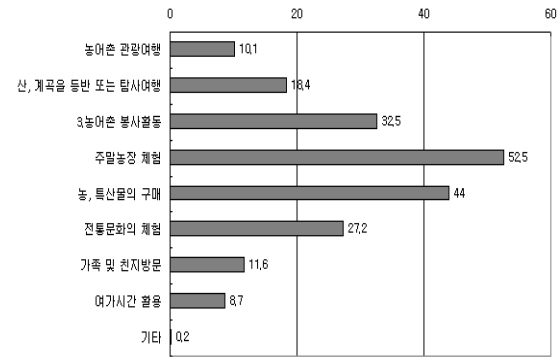


Fig. 4. The importance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district.

그러나 ‘농촌관광여행(10.1%)’과 농촌에서 ‘여가시간활용(8.7%)’등은 도, 농 교류를 위한 활동으로는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를 위해서는 막연한 농촌관광 여행이나 농촌에서의 여가활용 보다는 주말농장이나 농산물구매 등, 농촌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위주의 활동이 주요한 과제임을 읽을 수 있다.

3. 도시주민의 유형별로 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및 성향을 유형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행한 선호하는 농촌 유형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인자분석을 통하여 얻은 인자특점에 대하여 클러스터분석(군집분석, Ward’s Method)을 실행하여 도시주민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4 유형을 기본으로 농촌 여행목적, 농촌체험 선호도, 그린투어리즘 목표의 중요도 등에 대해 분석 하였다.

3.1 도시주민의 분류

앞서 행한 도시주민이 선호하는 농촌유형에 대한 결과(Table 2)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행하였으며,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인자를 주

출하고, 베리maks법에 의해 회전시킨 결과 Table 5와 같이 고유치 1이상의 인자 3개를 추출하였다.

이들 인자구조를 보면, 제 1인자는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 ‘농사기술에 의한 발전된 농촌’, ‘특산물이 풍부한 농촌’ 등의 농작과 관련된 인자로 볼 수 있고, 제 2인자는 ‘수려한 풍경이 있는 농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 ‘자연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농촌’ 등에 대해 인자 부하량이 크므로 이는 자연 접촉형 환경을 나타내는 인자로 볼 수 있다. 제 3인자는 ‘현대식으로 정비된 농촌’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의향이 강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factor analysis

항목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	.803	.144	.125
농사기술에 의한 발전된 농촌	.800	.110	.318
특산물이 풍부한 농촌	.696	.331	.102
전통관습이 남아있는 농촌	.659	.418	-.229
전통적 풍경이 있는 농촌	.631	.474	-.194
수려한 풍경이 있는 농촌	.049	.806	.194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	.218	.791	.057
자연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농촌	.229	.660	.093
동식물을 접할 수 있는 농촌	.392	.616	-.108
인정이 넘치는 농촌	.473	.582	-.117
논밭이 넓게 펼쳐진 농촌	.405	.515	.197
현대식으로 정비된 농촌	.114	.133	.891
고유치	5.401	1.152	1.084
기여율(%)	45.00	9.60	9.03
누적기여율(%)	45.00	54.60	63.63

이어서, 이들 3개의 인자에 의한 조사응답자의 인자특점을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사응답자인 도시주민을 4개 유형을 추출하였다.

각 유형별 12항목에 대한 인자 값을 방사형

그림으로 나타내는 Fig.5와 같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주민의 유형을 각각 ‘전반형’, ‘자연경관형’, ‘자연접촉형’, ‘무관심형’등 4개의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전반형은 전체 응답자의 4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촌 유형에 대하여 가고 싶어하는 의향이 강하다.

‘자연경관형’은 전체 응답자의 28.5%를 차지하며, 깨끗하게 정비된 농촌의 경관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농촌 환경에 대해 가고 싶은 의향이 강하다. ‘자연접촉형’은 전체 응답자의 24.2%로 자연과 동식물을 접할 수 있고 농촌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접촉이 가능한 농촌 환경에 대한 가고싶은 의향이 강하며, ‘무관심형’은 전체 응답자의 6.4%로 거의 모든 농촌 환경에 대해 가고 싶은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3.2 도시주민 유형별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3.2.1 농촌여행 목적

도시주민이 농촌을 여행한다면 가장 원하는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도시 주민 유형별로 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purpose of rural travel by type

항 목	전반형	자연경관형	자연접촉형	무관심형
아름다운 풍경감상	51.8	64.2	53.1	35.9
신기한 체험	27.3	34.1	31.3	30.8
그리운 향수를 충족	22.9	16.8	26.5	23.1
농사를 직접 체험	12.4	7.5	12.9	20.5
자녀의 교육적 체험	43.8	37.0	40.8	59.0
농촌고유 문화체험	26.5	12.7	21.8	25.6
레크레이션 활동	10.8	15.6	12.2	15.4
청정 환경의 향유	51.8	68.8	59.2	41.0
지역 특산물의 구입	30.9	28.3	26.5	33.3
농촌에 대한 이해	15.3	9.2	13.6	15.4
귀농에 대한 정보수집	8.0	4.0	0.7	2.6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아름다운 풍경감상을 통한 마음의 정화(64.2%)’는 그 중에서도 ‘자연경관형’ 응답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자연경관형’은 신선한 공기 등 ‘청정환경의 향유(68.8%)’ 항목에서도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농촌 여행의 목적이 활동자체 보다는 풍경에 의한 마음의 정화와 청정 환경의 향유 등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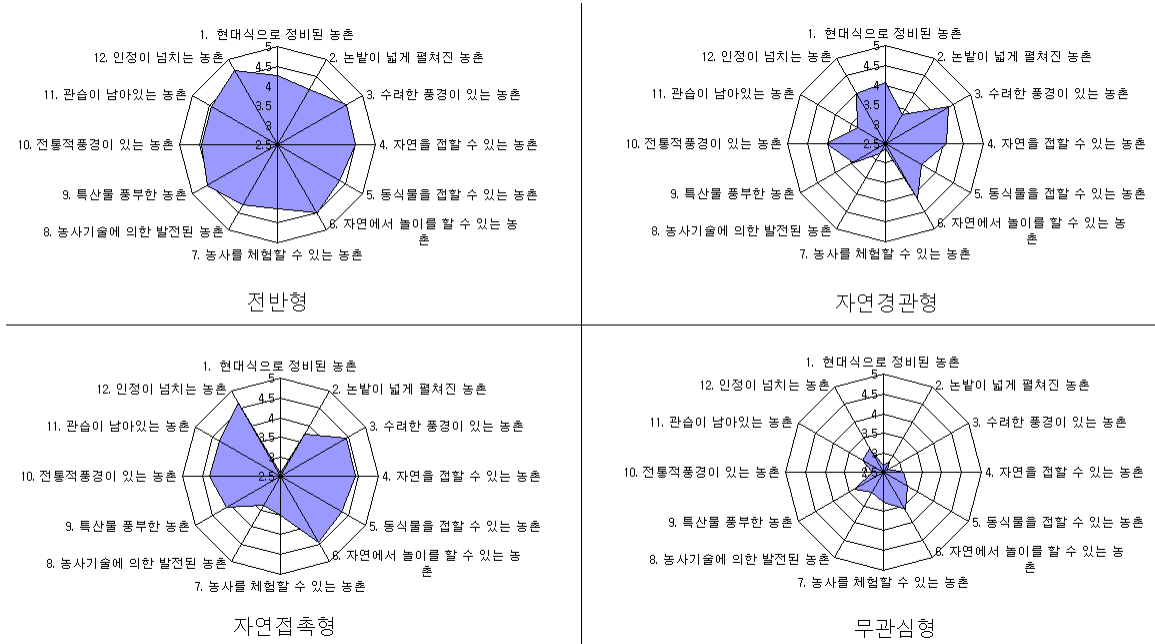


Fig. 5. The type of city people from preference among rural type.

‘전반형’은 ‘농촌 고유문화체험’, ‘농촌에 대한 이해’ 및 ‘귀농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다른 그룹에 비해 많다. 또한 ‘무관심형’은 ‘농사를 직접 체험’과 ‘자녀의 교육적 체험’ 등의 목적에 대한 응답이 다른 응답자 그룹에 비하여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행목적이 자신 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하여 무관심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2.2 농촌체험 선호도평가

앞서 행한 농촌체험 선호도에 대해 도시주민 유형별로 보면(Table 7), ‘전반형’은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 체험 하고 싶은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경관형’은 대체로 평균 정도의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농촌의 자연과 접촉’, ‘농촌의 전원 풍경을 즐김’, ‘청정한 환경을 향유’ 등에 대해 체험 선호도가 높으나, ‘농사를 체험해 봄’, ‘농촌생활을 이해함’,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인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접촉형’은 ‘농촌의 자연과 접촉’,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기대’, ‘청정한 환경을 향유’ 등 농촌의 자연환경과의 접촉에 대한 의

향이 강한 반면, ‘농촌의 전원풍경을 즐김’ 등에 대해서는 선호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 The preference among rural experience by city people type

항목	전반형	자연경관형	자연접촉형	무관심형
농촌생활을 이해	3.56	2.69	3.29	2.67
농사를 체험함	4.25	3.58	4.00	3.41
도·농 교류를 통한 문화격차 감소	4.31	3.84	4.23	3.72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기대	4.14	3.58	4.22	3.37
농촌의 자연과 접촉	4.4	4.1	4.28	3.61
농촌의 전원풍경을 즐김	4.27	4.00	3.55	3.21
농촌의 전통풍습을 접함	4.38	3.85	4.00	3.49
농촌 봉사활동	3.54	2.58	3.17	3.18
레포츠, 레크리에이션을 즐김	4.28	3.73	4.17	3.69
청정한 환경을 향유	4.51	4.28	4.47	3.85

‘무관심형’은 거의 모든 항목의 행위에 대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중간 값(3.0) 보다는 높다.

특히 ‘청정한 환경을 향유’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심형을 제외한 나머지 3그룹의 응답자가 매우 높은 의향을 보이고 있어 농촌의 청정한 환경을 접하는 것 자체를 농촌체험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3.2.3 그린투어리즘 목표의 중요도평가

한편, 도시주민 유형별 그린투어리즘 목표로써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Table 8), ‘전반형’의 경우 ‘레포츠, 레크레이션을 즐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그 중 ‘농촌생활의 이해’, ‘도,농 교류를 통한 문화격차 감소’,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기대효과’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형’과 ‘자연접촉형’은 양자 모두 ‘농촌생활을 이해함’,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기대’, ‘청정한 환경을 향유’ 등의 항목에 대해 중요시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무관심형’은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도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농촌체험 선호도와 비교해 보면 농촌체험에서는 ‘농촌 생활을 이해함’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반면, 그린투어리즘 목표에서는 ‘무관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농촌생활의 이해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The importance of Green Tourism object by city people type

항목	전반형	자연 경관형	자연 접촉형	무관심형
농촌생활을 이해	4.33	4.02	4.08	3.53
농사를 체험함	4.22	3.82	3.96	3.72
도·농교류를 통한 문화격차 감소	4.39	3.98	3.96	3.67
농촌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기대	4.35	4.06	4.12	3.74
농촌의 자연과 접촉	4.37	4.05	4.14	3.56
농촌의 전원풍경을즐김	4.26	4.01	4.11	3.59
농촌의 전통풍습을접함	4.26	3.81	3.97	3.67
농촌 봉사활동	4.35	3.82	3.99	3.61
레포츠, 레크레이션을 즐김	3.75	3.33	3.31	3.37
청정한 환경을 향유	4.38	4.23	4.37	3.74

특히, 도시주민 유형 중 ‘전반형’에 주목해 볼 때,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의 목표설정에서 도시민에게 농촌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부여와 함께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을 통한 실질적 농촌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있어서 주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4. 결론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도시주민의 심상(心象)에 남아있는 농촌의 이미지는 소박하고 인정 넘치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농촌이라 볼 수 있고, 특히 그리움과 정겨움이 남아있는 서정적인 풍경에 대한 동경이 강하며, 이러한 서정적인 농촌상은 실제의 농촌에 대한 느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도시주민이 일상적으로 농촌을 여행하는 주된 목적은 도시를 벗어난 청정 환경의 향유와 풍경감상을 통한 마음의 정화 등 심리적 치유효과 및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자녀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농촌관광의 형태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감상, 자연 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 풍부한 자연 요소와의 접촉 등을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따라서, 도시주민이 선호하는 농촌유형도 농업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이나 잘 정비된 현대식 농촌보다는 수려한 풍경과 풍부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농촌을 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에서의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농촌체험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4)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의 목표로서는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의 접촉 및 향유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을 통한 실질적 농촌생활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은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보다는 주말농장 및 농산물 구매 등, 농촌에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5) 도시주민의 유형별로 보면, ‘전반형(41.0%)’은 대부분의 농촌 관광 요소에 대한 이용 의향 및 욕구가 매우 강하고,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농촌의 자연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라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등 실질적인 농촌생활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형(28.5%)'은 아름다운 농촌 경관감상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연과의 접촉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연접촉형(24.2%)'은 농촌의 많은 활동에 대한 체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전반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금후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주민 유형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장래 농촌으로의 U-turn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형'에 대해, 이들 계층의 농촌 및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인식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참 고 문 헌

- 1)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 방안-대구시 시민 농원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 2)유승우 외: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3)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83-103. (2001)

- 4)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 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5)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 활성화 심포지엄, 전국 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6)장은숙, 전영미, 박윤희, 한국조경학회지, 30, 3, 35, (2002)
- 7)허준: 농천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조사기법의 특성분석-서천군을 사례로, 농촌계획, 13, 2 75-84 (2007)
- 8)박금용: 그린투어리즘의 운영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경기도 여주군 상호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9)엄대호, 김태철, 김은순: 요인분석에 의한 농촌마을의 그린투어리즘 수익 추정 모형 개발, 한국 농촌계획학회지, 12, 4, 23-32 (2006)
- 10)이경희: 농촌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문화관광연구, 6, 1, 333-343 (2004)
- 11)이용진: 그린투어리즘의 분석, 집문당 (2004)
- 12)井上和衛: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 (1996)
- 13)佐藤誠: 日本における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現像と課題, 運輸と經濟, 第57卷 (1997)
- 14)三田育雄: わが國の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展望, 運輸と經濟, 第59卷

(2008년 11월 18일 접수, 2009년 2월 13일 채택)